

제749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1월 1일)

## 어린이박물관 전시체험 ‘도구를 만드는 금속’ 알아보기 -금속마다 달라요-

이민수, 어린이박물관 내 ‘도구를 만드는 금속’ 체험코너 18:00~18:30

문화재는 금속, 흙, 돌, 나무, 종이, 식물 등 다양한 물질 재료로 만들어졌기에 재료의 특징과 성질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그중에 문화재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속 문화재는 주재료인 금속이란 무엇일까요?

금속은 광석을 채취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광석 속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제련과정을 통해 순수한 상태의 금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이용되었던 금속은 구리, 납, 은, 금, 주석, 철, 수은 등 7가지가 있습니다.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는 부드러운 금속일수록 길게 늘어나는 ‘연성’, 얇게 펴지는 ‘전성’, 낮은 온도에서도 녹는 성질 등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질들은 금속마다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고 그 성질에 맞추어 각기 다른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속의 어떤 성질 때문에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물건들을 금속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오래 전부터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금속으로는 금, 은, 철 그리고 청동이 있습니다. 이 4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문화재에는 어떤 것이 있고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린이박물관 전시체험물 ‘도구를 만드는 금속’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림1. 어린이박물관 전시체험 ‘도구를 만드는 금속’



그림2. 어린이박물관 체험물 ‘청동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 조선 사람들의 꿈, 평생도를 디지털로 만나다

양승미, 2층 기증관 앞 휴게공간 18:00~18:30

국립중앙박물관은 2021년 박물관 소장 <평생도平生圖> 8폭 병풍을 디지털로 복원한 ‘조선 사람들의 꿈, 평생도’ 라는 디지털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의 결과물을 담은 미디어 병풍과 경대 키오스크를 개발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꿈꾸었던 인생의 8가지 장면을 보여주는 <평생도>를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보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복원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평생도> 작품 정보와 디지털 복원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평생도>의 심화 학술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의 디지털 복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소장품의 훼손된 정도를 디지털로 채워넣고, 변색되고 오염된 부분까지 원래의 색에 가깝게 디지털로 복원하였습니다. 디지털 복원은 이후의 연구 성과에 따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경대 키오스크에 이러한 디지털 복원의 전후를 확대하여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미디어 병풍은 디지털 복원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3D 효과를 가미하여 생동감 있는 조선시대 사람들 누구나 이루고자 했던 인생의 8가지 장면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듈형으로 제작하여 해외에 소재한 한국문화원 및 우리문화재 국외전시·외국박물관 한국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외문화홍보원과 협업한 이 사업으로 총 3대의 미디어 병풍과 경대 키오스크가 제작되었고, 재외 한국문화원 및 한국실에서 상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국외 출품이 가장 까다로운 회화 문화재를 디지털로 복원하여 해외에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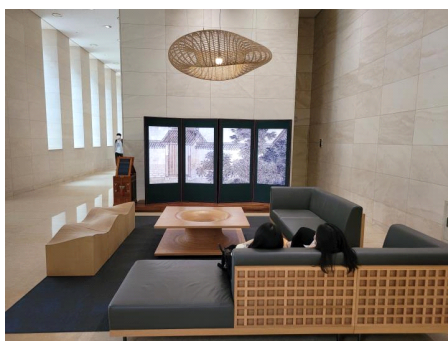


그림1. 미디어 병풍 및 경대 키오스크



그림2. 경대 키오스크

# 인간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불상 -반가사유상

양수미, 301호 불교조각실 19:00~19:30

오늘은 우리나라 고대 불교조각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 ‘반가사유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반가사유상이란 불교의 기본적인 수행 자세인 결가부좌(結跏趺坐)에서 한쪽 다리를 내려뜨린 ‘반가부좌(半跏趺坐)’ 자세를 하고, 오른손을 살포시 뺨에 댄 채 ‘깊은 생각에 잠긴[思惟]’ 모습을 한 상을 뜻합니다. 이렇게 존재의 이름이 아닌 자세의 특징으로 반가사유상을 일컫는 까닭은 여전히 반가사유상의 존명(尊名)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연구자들은 반가사유상이 태자 혹은 미륵보살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둘 다 미래에 부처가 될 존재로서 인간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금동으로 만든 반가사유상은 약 70점 정도가 알려져 있으며, 그 가운데 20점 가량이 우리나라에 전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사유의 방’에 전시 중인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을 포함하여, 이곳 불교조각실에서도 반가사유상 세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그림 1, 2). 세 점 모두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인 삼국시대 7세기 무렵의 작품으로 정확한 제작 시기나 제작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 반가사유상이 지나온 1,400년 동안의 사유의 시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림 1. 반가사유상, 삼국시대, 금동,  
높이28.6cm, 보물, 덕수2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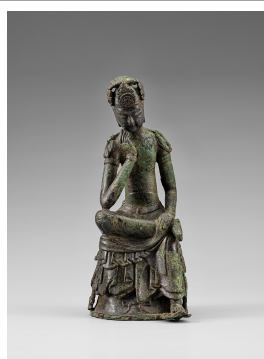


그림 2. 반가사유상, 삼국시대, 경남 양산 출토,  
금동, 높이 26.0cm, 신수4165



제749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1월 1일)

## 국립박물관 소장 중국도용

오세은, 309호 중국실 19:00~19:30

중국 사람들은 선사시대부터 종교 의식과 주술적 의미로 무덤에 부장품을 매장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날 독특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흙으로 만든 형상 즉 도용(陶俑)입니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도용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937년 허난성(河南省) 인취(殷墟, 기원전 11세기)에서 출토된 한 쌍의 남녀 노예용으로 손발이 묶인 모습입니다.(그림1) 이후 도용은 무덤에 순장(殉葬)과 함께 소량 매장되다가 전국시대(戰國時代) 유교 등의 이념학문이 발전하면서 황허(黃河)를 중심으로 잔혹한 순장제도는 사라지고 그 대신 도용을 무덤에 부장하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도용은 중국 고대 왕조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각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제(秦始皇帝)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그 세력을 만천하에 과시하기 위해 거대한 병마용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한왕조(漢王朝)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기반으로 후장(厚葬)풍습이 유행했고 무덤에 도용과 각종 부장품을 매장했습니다. 한대 도용은 진(秦)과 비교하여 크기가 축소되었지만 종류의 다양성은 중국 조각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남북조시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로 한족 풍습이었던 도용 제작은 황허 중류의 뤼양(洛陽)을 중심으로 일정기간 그 명맥만 유지했습니다. 부장된 도용은 진묘용, 의장용, 인물용, 동물용 등 4가지 조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간소화되었습니다. 이후 당(唐代) 경제 부흥과 세력 팽창으로 사회가 안정되었고 도용 풍습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 중기 이후 삼채로 도용을 만들면서 제작 기법과 수량 모두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또한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지방과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져 외국인의 빈번한 왕래와 낙타·아라비아말, 코발트 안료 등이 수입되었습니다. 이국적인 외국인과 동물은 마부 하인 도용과 의장용 말 등으로 제작해 무덤에 매장했습니다.

국립박물관에는 한, 남북조, 당, 송대의 중국도용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기 위한 진묘용과 의례용 도용, 저승의 생활을 편히 수발하기 위해 만든 하인 도용 등 종류도 비교적 다양합니다.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십이신상(四神十二支)”로



그림1. 석제 십이지신상, 전(傳) 민애왕릉, 통일신라 8세기

진묘수와 천왕용, 무사용 그리고 십이지신상입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띠’를 중시했던 국가로 십이지신상을 무덤의 감실 4방향에 3개씩 나누어 매장했습니다. 십이지신상은 당 초기의 동물모양, 중기의 수수인신(獸首人身, 동물머리에 사람의 신체), 후기부터 오대까지 동물을 안고 있는 사람의 형상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당 현종 이후 유행한 수수인신의 형상이 신라에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무덤과 왕릉의 봉분 둘레의 돌에 새겨진 십이지신상 모두 수수인신 형상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